

■ '사평역'으로 생애 첫 정식무대 선 주부 송정숙씨

“연극이 내 안의 나 깨워줬어요”

주부극단 연습 구경갔다 즉석에서 캐스팅

“감정표현 서툴렀지만 첫 무대 섰을때 짜릿”



‘사평역’에서 양역사역을 맡은 주부 송정숙(사진 왼쪽)씨

지난 27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무대에 오른 ‘사평역’(각색·연출 오성완)에서는 한 중년 여배우가 눈에 들어왔다.

푸른연극마을의 작품인 ‘사평역’에서는 객체극의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무대 위에 끊임없이 내리는 눈마냥 다양한 사연을 안고 ‘파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연극이다.

낮은 시골 역사 대합실 의자에 앉은 사연 많은 주인공 가운데 눈에 띈 인물은 중년의 서울 여자, 양역사, 분명 무대에서 처음 본 배우인데 이담금·김명대·오성완·정일행·정봉관씨 등 기존의 푸른연극마을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작품 속에 녹아드는 모습이 꽤 익숙해 보였다.

주인공은 ‘사평역’을 통해 난생 처음 정식 극단의 첫 무대에 선 주부 송정숙(53·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다.

평범한 주부였던 송씨가 연극과 인연을 맺은 건 지난 10월 중순이다. 푸른연극마을이 진행하던 주부극단 ‘앨리스 줌마들’에서 활동하던 친구가 11월에 무대에 올릴 작품을 연습중인데 한번 구경오라고 초대했었던 것.

“연극을 몇번 보기는 했지만 연습 과정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죠. 자기 이야기들을 대본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연출하던 이담금씨가 한번 대본을 읽어볼까냐고 해서, 겁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즉석에서 캐스팅됐다. 작품 ‘에어 플레인’에서 카페 여주인의 친구로 발탁됐고, 작품의 프롤로그 부분에서 시를 낭송하는 역도 맡았다.

2주간의 짧은 연습 기간을 거쳐 ‘무대’에 섰고 희열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푸른연극마을이 ‘사평역’에 출연할 여배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추어 주부극단과 프로 극단은 무

감에 달렸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중년의 ‘서울여자’ 역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머 그런 역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며 시켜달라고 했죠.(웃음). 아마추어와 프로배우는 다르기 때문에 막 정식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보자 했죠.”

송씨는 지금까지 4회 공연을 가졌다. 공연을 보러온 주부극단 회원들은 ‘왕언니’ 정숙씨에게 부러운 마음을 전했다.

“다들 주부극단 단원으로 무대에 서면서 연극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인데 제가 무대에 오르니 많이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저야 아이들 다 커서 부담도 없고 해서 더 도전하는 게 빨랐을 뿐이지 다른 주부 단원들도 다 무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연할 때마다 아쉬운 점도 많아요. 대사를 하면서 좀 더 감정 표현을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구요. 연극을 한다는 재미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가지 것들을 끄집어 내준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들은 벌써 두번씩 연극을 관람할 정도로 든든한 후원군이다. “엄마가 행복해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우리도 행복하다”는 아이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

“극단에서 불러만 주시면 무슨 역할이든 다 해보고 싶어요. 제 나이에 맞는 40~50대 여성들이 갖는 설렘임과 기쁨 슬픔, 한스러움을 풀어낼 수 있으면 더 좋겠구요. 싸이코 같은 역할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부들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줬으면 싶어요.”

‘사평역’은 2일(오후 8시)과 3일(오후 6시) 두차례 더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문의 062-511-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용기만 있으면 당신도 배우”

푸른연극마을·극단 청춘 주부·직장인 단원 모집

최근 지역 극단들이 주부, 직장인 등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연극마을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앨리스 줌마들’ 3기 회원을 모집한다. 교육은 일주일에 1회씩 무료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1부.

푸른연극마을은 또 20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연극교실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며 주2회 모임(연극 교육 프로그램, 공연 준비)을 갖고 1년에 한 차례씩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된다. 문의 062-

511-2446.

극단 청춘(대표 오성완)이 제 5기 청춘연극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 내용은 연극 놀이, 이론, 화술, 호흡, 발성 등이며 독백, 2인 대사, 장면 연기 등 수업 사례 발표회도 갖는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시민이며 강의는 3일부터 2012년 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오후 7시30분~9시30분) 주 2회 진행된다. 모집 마감은 오는 11일까지며 회비는 5만원이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해설·영상으로 ‘클래식과 친해지기’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강좌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광주시 동구 학동 옛 목화예식장 옆에 문을 연 클래식음악 감상실 다락(茶樂)에서는 다양한 클래식 강좌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2차례 집중 강좌를 열었던 다락이 ‘다락 아카데미 3기-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유럽여행’ 회원을 모집한다.

이 강좌는 주요 작곡가와 작품을 콘서트 실황으로 해설하고, 영상을 통해 그들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유럽의 마을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

강좌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 총20회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클래스와는 달리 처음으로 오후 시간(2시30분~4시30분)에 강의가 열린다. 강의는 김명선 다락 대표가 맡는다. 회비 12만원(음료 및 다과 20회, 인쇄물 등). 마감은 9일까지.

다락은 다양한 무료 영상음악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매주 월요일에는 다락의 운영위원들이 진행하는 영상음악감상회와 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주자였던 김찬경씨가 진행하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이 열린다.

음악감상실 다락 ‘아카데미 3기’ 모집

모차르트 집중 감상 등 무료강좌 풍성



다락에 갖춰진 유리스미 II.

‘모차르트와 함께하는 수요일 영상음악회’는 KBS FM 등에서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 해설을 맡은 안철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토요일 오후 8시에는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 클래식 영상음악회’가 진행된다. 금요일에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다락 홈페이지(http://cafe.daum.net/darakclassic)를 방문하면 매주 상영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

다. 지난 4월 문을 연 ‘다락’은 80석 규모의 좌석과 매킨토시 XRT26스피커와 대형 스크린을 갖춘 감상실과 유리스미II를 갖춘 홀 등 두개의 공간을 운영중이다.

다락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오후 2시~밤10시(일요일 휴무·강의 시간 제외) 문의 062-226-01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의 아름다움 화폭에 피었네

예매회 회원전 2~8일 광주 은암미술관

한국화의 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온 예매회(회장 박정준)가 오는 2~8일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광웅·김병규·김신영·김호민·문인정·박환숙·설박·성태훈·안성구·윤덕희·윤영필·이규웅·이창훈·조미란·조선아·조종희·최미연·한민정·황지현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수

묵산수를 비롯 사실적인 정물화, 도시풍경 등 주제와 소재 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설박씨는 화선지에 먹을 물들인 뒤 이를 찢어 붙여 사물을 표현한 독특한 기법으로 만들어 낸 풍경을 선사하고, 성태훈씨는 정밀하게 묘사한 담 연작을 전시한다.

문의 062-231-529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정준작 ‘춘 문자도’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의부부합창단’ 5일 문예회관 정기연주회

광주사랑의부부합창단(단장 강성우·지휘 윤영문)은 오는 5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소극장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를 주제

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성가곡 ‘아름다운 분향’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등을 들려준다. ‘푸른 꿈을 키워가요’ ‘동요 매를리’ 등의 동요와 ‘은하수’ ‘도만 아는



강성우

윤영문

바리톤’ 등의 합창도 이어진다. 또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팀 ‘빅사이즈’가 흥겨운 춤사위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

www.geum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 이상)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 이상)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볼룸 **2011. 12. 15(목) 19:00**

예약 및 문의: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콜렉트 증명)